

[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인 소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의 내용, 청구의 원인 등이 기재된다. 여기서 당사자는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측인 원고와 그 상대방을 의미한다. 소장에서 당사자의 기재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당사자란에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문제는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소송에서 당사자는 어떻게 결정될까? 이에 대해 ㉠형식적 표시설은, 소장의 당사자란에 작성된 당사자를 해당 소송의 원고와 피고로 확정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당사자를 확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고란에 기재가 법인 A를 피고로 지목한 것인지, 아니면 그 법인의 대표자 B를 피고로 지목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원고란의 기재만으로 당사자를 확정한다면,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당사자를 피고로 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표시설이 선택된다. 실질적 표시설은 형식적 표시설과 달리 당사자란에 기재된 표시뿐만 아니라 청구의 내용, 청구의 원인 등 소장의 전체적인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다. 이외에도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고 하는 자를 당사자로 확정해야 한다고 보는 ㉢의사설이나 실제 당사자로 소송에 참가한 자를 당사자로 보는 행위설이 있다.

한편, 소장에 당사자로 기재된 사람과 실제 소송을 수행한 사람이 다른 성명모용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용자 갑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모용자 을의 성명으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병이 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모용자 갑이 피모용자인 을 몰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실질적 표시설은 판결이 실제로 소송을 수행한 사람이 아니라,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피모용자인 당사자는 상급 법원에 재판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상소나, 판결을 한 해당 법원에 재판의 취소를 요구하는 재심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의사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행위설에 따르면 당사자에 대한 구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판결이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피모용자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에는 반드시 원고와 피고를 기재해야 한다.
- ② 당사자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당사자를 확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법인 그 자체로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④ 소장에 당사자로 기재된 사람과 실제 소송을 수행한 사람이 다를 수 있다.
- ⑤ 성명모용소송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재심이나 항소로서 구제를 받아야 한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갑은 법인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원고란에 갑, 피고란에 법인 A를 기재하여 소장을 작성하였고, 법원은 원고를 갑, 피고를 법인 A의 대표자로 확정하였다. 이후 해당 소장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갑의 사주를 받은 을이 법인 A의 대표자인양 행사하여 재판을 치렀다. 재판이 종료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법인 A의 대표자는 구제 절차를 알아 보고 있다.

- ① 갑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작성이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 ② 법원이 당사자를 법인 A의 대표자로 확정하는 것은 소장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한 결과였다.
- ③ 의사설에 따르면, 재판의 효력은 법인 A의 대표자에게 미치지 않았다.
- ④ 행위설에 따르면, 법인 A의 대표자는 상소나 재심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 ⑤ 확정된 판결은 법인 A의 대표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아니었던 것이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당사자란에 작성된 당사자와 확정된 당사자가 다를 수 있다.
- ② ㉠과 ㉡은 모두 당사자란에 기재된 표시를 고려하여 당사자를 확정한다.
- ③ ㉠과 달리 ㉡은 소장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자를 확정한다.
- ④ ㉢과 달리 ㉣은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고 하는 자를 당사자로 확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과 ㉡은 모두 성명모용소송이 발생했을 때 상소나 재심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송의 당사자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② 실제로 소송을 수행한 자가 재심이나 상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와 실제 소송을 수행한 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 ④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 ⑤ 소장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당사자를 확정하였기 때문이다.